5·18 恨 풀리나…진상규명 설레는 광주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6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 헌법 전문 수록·진상규명위 설치 등 공약 전두환 등 폄훼 세력 엄단·박승춘 보훈처장 경질도 관심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명박·박근 혜 보수정권 아래 훼손·폄하돼온 5·18민 중항쟁 정신이 다시 한 번 꽃을 피울 것이 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통해 "5·18의 헌정사적 의미와 가치를 규범화하고 대통령이 되면 5·18민중항쟁 기념식에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겠다"고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공언했다는 점에서 미완으로 그친 5·18진 상규명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9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5·18관련 공약을 구체화한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환영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공약에서 밝 힌 내용들을 집권 후 그대로 이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춘식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은 "보수정권 아래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의 끊임없는 5·18왜곡, 지역 편가르기 시도로 5·18정신이 땅에 떨어졌다"면서 "문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집권 초반부터 5·18정신을 훼손하려는 세력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묻는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5·18단체 관계자들이 한목소리로 "문 대통령이 공약대로만 하면 된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는 그만큼 문 대통령이 후보자 시 절 밝힌 $5 \cdot 18$ 관련 공약이 꼼꼼하고 구체적 이어서 그대로 이행하기만 하면 $5 \cdot 18$ 위상 회복은 시간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5·18 관련 공약을 구체 적으로 내놨다. 그는 우선 5·18민주화운 동 정신을 헌법 전문(前文)에 수록하겠다 고 밝혔다. 5·18정신을 헌법에 명기함으 로써 5·18민중항쟁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 법적 가치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가 차원의 '5·18진상규명위 원회'를 구성해 5·18 당시 발포명령자 및 헬기기총소사 책임자 처벌 등 '완벽한 5· 18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5·18특별법 개정 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두환을 필두로 한 5·18 정신 훼손 세력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공약에서 천명했다.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사전

적 조치로 정부와 군(軍)이 보유한 '5·18 관련 자료 폐기금지 특별법' 제정, 광주지역 내 5·18유적지 보존을 통한 진실훼손 시도 원천 차단 방침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구성하는 예술관의 하나로 전략해버린 옛 전남도청을 1980년 5월 5·18시민군의 최후 항쟁지에걸맞게 복원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은바 있다. 문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통해 5·18단체와 광주전남 시민사회 측 요구사항 전체를 수용했다고 봐야한다는 해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광주일 보와 인터뷰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에 대한 호남인의 분노가 크다. 집권한다 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집권 이후 즉각 책임을 묻겠다"고 단호 한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박 처장 경질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05:33 18:46 19:25 05:21 오랜만에 '쾌청' 춘천 서울 \bigcirc 강릉 \bigcirc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인천 **\$** 독도 광 주 흐린 뒤 맑음 | 14/21 <mark>보 성</mark> 흐린 뒤 맑음 | 13/21 **△>** 대전 포 흐린 뒤 맑음 13/18 순 천 흐린 뒤 맑음 대구 수 흐린 뒤 맑음 | 14/22 | 영 **△** 부산 례 흐린 뒤 맑음 13/21 <mark>군 산</mark> 흐린 뒤 맑음 13/19 광주 강 진 흐린 뒤 맑음 | 13/21 | 남 원 흐린 뒤 맑음 | 12/20 ₩ 해 남 호린 뒤 맑음 | 12/20 <mark>흑산도</mark> 호린 뒤 맑음 | 12/18 제주 장 성 흐린 뒤 맑음 13/20 △>> <u>♦ 바다 날씨</u> 위험 앞바다 식중독 <u>먼바다(동)</u> 남서~서 1.5 -북서 먼바다(서) 보통 ◇물때 자외선 만조 07:12 01:59 목포 19:20 14:04 보통 02:43 08:46 여수 피부질환 14:44 21:17 ◇ 주간 날씨 11(목) 13(토) 14(일) 15(월) 16(화) 17(수) 12(금) - 14/24 16/28 16/28 15/26 13/26 15/25 16/25

中서 교통사고…韓유치원생 10명 참변

빗길에 앞차와 충돌···운전기사 등 12명 숨져

중국 산둥(山東) 성 웨이하이(威海) 시 의 한 터널에서 '웨이하이 중세한국국제 학교' 부설 유치원 차량에서 불이 나 12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주중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산둥성 웨이하이 시 환추이 (環翠) 구 타오쟈쾅 터널에서 중세한국 국제학교 부설 유치원 통학차량에 불이 나 차량에 타고 있던 유치원생 11명과 운전기사 1명이 숨졌다.

숨진 유치원생 11명 중 10명은 한국인 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한 명은 중국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유치원생

들은 4~7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웨이하이시는 이번 사고로 사망한 유

치원생이 한국 국적 5명, 중국 국적 6명 이라고 밝혔으나 이중 국적자까지 포함 하면 한국 국적이 총 10명인 것으로 파 악됐다.

사고 당시 이 버스는 빗 속에 웨이하이시 경이시에서 아이들을 태워 웨이하이시 경제기술개발구 소재 학교로 가던 중이었으며, 오전 9시께 타오쟈쾅 터널에서 앞에 있던 쓰레기 운반 차량과 충돌하면서 버스 앞쪽에 불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중국인 인솔교사가 타고 있었으며, 교사 역시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버스 출입구에서 발화되면서 중국인 운전기사는 사망했다. /연합뉴스

청소년들이 뽑은 대통령은? …광주서 모의 투표

YMCA 주최 전국 5만2600여명 참여…오늘 결과 발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투표권이 없는 광주의 청소년들도 직접 대통령 투 표에 나섰다.

한국YMCA전국연맹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전국의 투표권이 없는 만 19 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나만 안 되 는 선거, 투표권을 줄게! 청소년이 직접 뽑 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이름 으로 마련한 모의투표다. 이날 오전 10시 광주시 동구 황금동 청소년삶디자인센터(구 학생회관)에서 열린 모의 오프라인 투표장에는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기 위해 모여 투표를 했다. 모의투표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투표소 앞에 설치된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나는 ○○○을 하겠습니다'라는 주제의 게시판에 자신들 의 소망이 적힌 메모지를 붙였다. 청소년 들은 메모지에 '선행학습과 야자 완전폐지', '고등학교 등교시간 연장', '교복 입지 않기' 등 다양한 소망을 적었다. 또, '직업 계층 늘리기', '복지정책 늘리기', '유기견 보호 대책 마련하기' 등 대통령이 되면 추진하고 싶은 정책들도 제시했다.

이날 광주YMCA가 마련한 투표장에는 300여명의 청소년들이 방문했다. 미리 준비한 오프라인 투표용지 300장은 오후 4시30분께에 동이나 애초에 계획했던 오후 6시가 아닌 오후 4시30분께에 모의투표를

끝냈다.

이날까지 전국의 청소년들은 온라인으로 5만2600여명이 모의투표를 신청했다. 투표결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과를 합 산해 다음날인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한 표를 행사한 풍암중학교 신지 웅(16) 학생회장은 "이번 청소년 모의투 표와 촛불집회를 통해 대한민국 청소년들 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보여줬다"며 "청소년들도 의식 이 깨어있고 충분히 자기 주장을 할 수 있 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만18세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왔도록 에야인다 그 구경였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천주교 광주대교구 5·18 기념행사 다채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5·18 광주민중항쟁 37주년을 맞아 도보 순례와 기념 미사 등 다양한 행사를

14일 오전 8시30분 광주 살레시오 고등학교에서는 5·18정신 계승을 위한 도보 순례 및 추모미사가 열린다. 중·고등학생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도보 순례는 살레시오고를 출발해 국

립 5·18민주묘지까지 9km를 걸으며 5·18의 정신을 되새긴다. 17일 오후 2시 광주 가톨릭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에서는 5·18 학술 심포지엄이 열린다. 이어 오후 7시에는 광주 남동성당에서 5·18 광주민주항쟁 37주년 기념미사가 열린다. 미사 후에는 금남로 5·18 민주광장까지 촛불 행진을 하고 80년 5월의 광주 정신을 되돌아본다. /김용희기자 kimyh@



